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發掘調査 現場說明會 第117輯

진주시 상평동 남강 자이아파트 신축부지내 문화유적  
發掘(試掘)調査 現場說明會

2008. 2



財團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法人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50,000)

도업번호 진주 35813025 · 35813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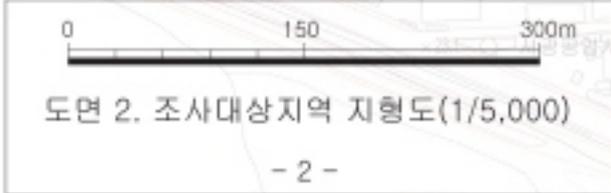
남강

조사대상지역

대동기계공고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입회조사지역(2006년)

남강



## I. 조사개요

### 1. 조사명

진주시 상평동 남강 자이아파트 신축부지내 문화유적 표본발굴(시굴)조사

### 2. 조사대상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270-14번지 일원(21,563㎡)

### 3. 조사기간

2008. 2. 12 ~ 2008. 3. 5

### 4. 조사기관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 5. 조사단 구성

- 조사 단 장 :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부원장)
- 지도 위 원 : 이동주(동아대학교 교수)
- 책임조사원 :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 조 사 원 :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 조사보조원 : 김정율(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보 조 원 : 김진영(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6. 조사의뢰자

(주)디에스개발

## II. 조사경위 및 목적

조사대상지역은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270-14번지 일원으로, 2002~2003년 경상대학교박물관에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주택이 밀집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지역 서쪽으로 남강이 곡류하고 넓은 하안충적지를 형성하고 있는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 본 조사대상지역과 인근한 하안충적지상에는 진주 남강유적·평거동유적과 같이 선사~역사시대에 이르는 대규모 생활유적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발굴조사 이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시공사에서 주택 철거를 진행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진주시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공사예정지가 남강변의 사질 퇴적토상에 있으므로 이곳에는 진주 대평유적과 진주 평거동 유적 등과 유사한 선사유적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상당한 부분에 지하의 유구가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의 주택들이 철거되고 난 후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유적의 유존여부를 파악한 후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업승인 조건을 제시하였다.(진주시 건축과-31077(2007.11.02)행정안내문) 이에 (주)디에스개발에서는 상기의 조치사항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 표본발굴(시굴)조사를 의뢰하였으며 2008년 2.12일부터 현재 까지 조사를 진행중이다.

## III. 조사대상지역의 개관 및 주변의 문화유적

### 1. 조사대상지역 개관



도면 3. 남강주변 지질도

조사대상지역은 사행하는 남강에 의해 삼면이 둘러싸여 형성된 하안충적대지로서 과거 남강의 범람원으로 퇴적충적층이 하부에 분포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해발 153m의 선학산을 중심으로 구릉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동쪽으로 멀리 해발 482.4m의 장군대 산맥이 자리잡고 있다. 서쪽으로는 남강을 사이에 두고 해발 172.4m의 망진산맥이 위치하며 능선과 계곡의 발달이 남쪽으로 발달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남쪽으로는 소규모의 지산역들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뚜렷한 산맥은 없는 지형이다.

조사대상지역의 바로 북측으로 진주시청, 서측에는 진주기계공고가 인접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상평공업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조사대상지역은 최근까지 일반주택단지로 이용된 주택밀집지역으로 2002~2003년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매장문화재의 징후는 확인된 바 없으나 남강에 인접하고 있으며, 남강의 하천작용에 따른 유로변경 및 범람에 의한 충적대지의 형성, 충적대지상에서 확인되는 대규모 선사~역사시대의 생활유적의 양상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사대상지역 역시 매장문화재의 유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추정된 곳이다.

## 2. 주변유적 현황

진주 지역은 사행하는 남강변에 펼쳐진 하안충적대지가 발달되어 남강변을 중심으로 선사시대의 유적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내촌리와 평거동유적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되어 이때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조사대상지역인 진주시 상평동과 인근의 상대동, 하대동, 가좌동, 평거동 등 조사지역의 주변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선사유적은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과 청동기시대~삼국시대의 주거지가 조사된 평거동유적과 무문토기 저부편이 지표에서 채집되어 청동기시대의 생활유적이 분포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대동유적 등이 있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으로는 주거지 및 경작유구가 확인되어 조사되고 있는 평거동유적과 가좌동유적, 상대동유적, 하대동유적, 개양유적 등의 유물산포지, 가좌동 고분군, 옥봉고분군(경상남도 기념물 제1호), 초전동 내동유적, 장재동 고분군 등의 분묘유적, 그리고 불교유적으로는 단성 석조여래좌상(보물 제371호) 등이 분포해 있다. 이후 고려·조선시대의 유적으로는 상평동 석조여래입상(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71호), 평거동 석조여래좌상(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7호), 평거동 고려고분군(사적 제164호), 망진산봉수, 진주성(사적 제118호), 진주향교(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0호) 등이 분포해 있다. 조사대상지역인 상평동과 인근지역에 분포해 있는 유적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1) 長在洞 古墳群①・②

진주시 장재동 드무실마을 일대에 위치하는데 장재동에서 장재소류지로 들어가는 도로의 서쪽 야산 일대에 분포하며 장좌동 고분군①・②로 나뉘어져 있다. 야산의 정상부에는 봉토분을 가진 고층 4기가 있는데 ‘晉陽姜公諱秀伯之墓’의 동쪽에 있는 1호는 원분으로 봉토와 내부 석실이 파괴·노출되어 있다. 봉분은 직경 10m, 높이 2.5m로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장주체부는 횡혈식석실분으로서 좌우 장벽과 개석만이 남아 있다. 석실은 할석을 이용하여 쌓았으며, 석실의 규모는 길이

3.2m, 바닥폭 1.55m, 천정높이 1.3m, 천정폭 0.6m로서 위로 가면서 점점 좁혀서 쌓았다. 나머지 3기는 붕분이 완전 삭평되어 흔적을 찾기 어려운데 2호는 도굴갱으로 확인되는 양상으로 보아 수혈식석곽묘 여러기가 배치된 다곽식의 구조로 추정된다. 또한 고층이 있는 아래쪽의 사면에는 삼국시대의 토기편들이 산포해 있어 소형의 수혈식석곽묘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층이 있는 북쪽 야산의 중턱에도 파괴된 횡혈식석실분 1기와 소형의 수혈식석곽묘들이 확인되고 있다.

## (2) 草田洞 내동 遺蹟

진주시 초전동 내동마을 일대에 위치한다. 금성초등학교 북서쪽에 있는 내동마을 북서쪽 야산의 정상부와 사면에 분포한다. 현재 복숭아, 자두나무 등의 과수원에서 삼국시대의 단경호, 개, 대옹 등의 토기편이 다량으로 산포해 있다. 관련된 유구는 확인되지 않으나 채집되는 유물로 보아 목곽묘를 중심으로 하는 삼국시대의 매장유구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晋州郷校(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0호)

진주시 옥봉동 232-1번지에 위치한 진주향교의 창건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新羅 소성왕 원년(799)에 지금의 진주인 청주의 노거현을 국학의 學生祿邑으로 했다고 한 것과 조선 세종조의 영의정 河演의 『四教堂記文』에 의하면 고려 현종 때 인물인 殷烈公 姜民瞻 장군이 이곳에서 공부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고려 초에 이미 설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현종 2년(1011)에 西齋를 중건하고 修學院, 學舍, 西齋, 四教學堂 등으로 개칭되었으며, 조선 태조 7년(1398)에 文廟를 창건하여 郷校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訓導, 敎官, 敎授 등이 成均館으로부터 파견되었다. 조선 명종 13년(1558)에 현 위치로 이관하였으며, 牧使 김홍이 대대적으로 중수하였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소실되었고 선조 36년(1603)에 兵使 이수일이 文廟를 중건하여 4년 후인 丁未年에 병사 김태허가 明倫堂과 東西齋를 중건하였다. 이후 수차례 중수하였으며, 1962년에 講學空間인 明倫堂, 東齋, 西齋를 인접한 곳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관하였고 제사공간의 출입문인 三門은 현 위치의 大成殿 앞마당으로 이관하고 風化樓를 三門이 있었던 위치에 이관하였다. 명륜당은 이관할 때에 정면 5칸에서 4칸으로 축소되었고 四教堂이 1986년에 중건되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大成殿, 東廡, 西廡, 內三門, 明倫堂, 東齋, 西齋, 四教堂, 風化樓 등이 있다.

## (4) 玉峰 古墳群(경상남도 기념물 제1호)

진주시 옥봉남동 산456번지에 위치하는 가야의 고분군이다. 진주시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남강의 북안에는 해발 64.7m의 남봉과 해발 92.3m의 북봉으로 이루어진 독립구릉이 있는데, 이 두 봉우리의 정상부에 위치한 고분군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정봉·옥봉고분군이다. 이곳에는 원래 대형봉분을 가진 고총 7기가 구릉의 정상부를 따라 분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도굴과 도시개발 등으로 대부분 소멸되었다. 1910년 일본인에 의해 수정봉 2·3호분과 옥봉 7호분이 발굴조사되고 『朝鮮古蹟圖譜』에 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1990년 일본 동경대학종합자료관건축사부문에 소장되어 있는 수정봉 2호분과 옥봉 7호분 출토유물이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수정봉 2호분은 원형의 봉토와 황혈식석실을 매장시설로 하는 고총으로 석실은 길이 4.73~5.32m, 너비 0.7~1.76m, 높이 2.3m인 평면 세장방형의 현실과 전벽의 중앙부에 축조된 羨道로 이루어졌다. 유물로는 토기류와 철기류, 유리구슬 등이 출토되었다. 수정봉 3호분은 2호분과 같은 봉토와 매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토기류와 철기류 등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물의 행방은 알 수 없다. 옥봉 7호분에 대해서는 실측도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석실의 규모와 구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데 수정봉 2·3호분같은 것으로 추정되며,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 등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옥봉고분군은 유구와 유물로 보아 6세기 전반대에 진주의 유력 가야집단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남강유역을 둘러싼 백제와 대가야 정치체와의 관계 규명에 중요한 고분군으로 평가되고 있다.

#### (5) 下大洞 遺蹟①・②

진주시 하대동에 분포하는데 뒷동네의 하대동유적①과 앞동네의 하대동유적②, 2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대동유적①은 하대동 뒷동네의 야산에 나있는 등산로와 그 주변에서 삼국시대의 단경호와 대용 등의 토기편이 채집되어 이 시기의 매장유구가 분포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대동유적②는 하대동 앞동네의 진주제일여고에서 선학산 쪽으로 가는 포장도로변에 위치한다. 현재 밭으로 경작되는 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 저부편과 삼국시대의 단경호편이 소량 채집되어 이 지역에는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의 생활유적이 분포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6) 上大洞 遺蹟①・②

진주시 상대동 진주시립연암도서관 주변에 분포하는데 상대동유적①과 ②, 2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상대동유적①은 도서관의 동쪽으로 나있는 길의 동북쪽 야산 말단부에 위치하며, 상대동유적②는 도서관의 동쪽에 있는 야산의 사면에 위치한다. 이 곳 일대에서는 삼국시대의 토기편이 소량 채집되는데 관련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유물도 소량만 채집되어 단순한 유물산포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7) 上大洞 古墳群(경상남도 기념물 제159호)

진주시 상대동 산3-2번지 에 위치하는 이 고분군은 고려 충숙왕 때 崇政大夫 議政府 贊成事를 지낸 鄭臣重 내외의 합장묘와 조선초기의 대유학자이며 문장가인 文定公 鄭以僞 내외의 분묘, 조선초기 右議政을 지내고 단종을 위해 순절한 忠壯公 鄭萊 내외의 분묘 등 총 5기의 진주 정씨 3대 묘역이다. 형태별로는 팔각분 3기, 방형분 2기로서 고려말에서 조선전기의 묘제 변천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현재 진주 정씨 문중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다.

### (8) 上坪洞 石造如來立像(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71호)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진주 삼현여고 교정에 위치한다. 두부는 마모가 심해 분간하기 어려우며 右手는 결실되었다. 팔각대좌 역시 원래의 짝이 아니며 立像 자체는 충청도 지방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서 확실치는 않으나 충청도 지방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된다. 마모된 두부에는 육괴의 흔적이 보이며 목에는 三道가 보이고 衣褶은 U字를 나타내고 있다.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총 높이는 2.7m이고 佛身의 높이는 1.65m이다.

### (9) 소호동 遺蹟

소호동 새마을회관과 헤림어린이집 뒤쪽 구릉에 위치한다. 현재 배나무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 곳에서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와 삼국시대의 토기편이 소량 채집되었다. 관련유구는 확인되지 않으나 채집유물로 보아 생활유적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 (10) 晋州城(사적 제118호)

진주시 본성동과 남성동 일대에 위치하는 진주성은 진주의 역사와 함께 국난극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우리민족의 聖地이다. 축석성으로도 불렸던 진주성은 원래 內城과 外城으로 된 이중성이었다. 외성은 도시화로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으나 내성은 1969년부터의 정화사업을 통해 둘레 1,321m, 높이 5m의 성벽, 수문, 암문, 장대, 포루, 축석루와 축석문 등이 복원되었다. 진주성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고려 말부터이다. 왜구의 침입을 막기위해 14세기 후반 高麗 恭愍王은 7차례나 성을 고쳐 쌓았고, 조선전기 河崙의 『晋州城門記』에 따르면 1379년 禡王은 土城을 石城으로 고쳐 쌓았다 한다. 『慶尙道 續纂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은 1401년과 1437년에 조선 태종과 세종 때 쌓은 석성의 규모가 둘레 4,359척(1,356m), 높이 15척(4.7m)이었다고 전한다. 선조 24년(1591)에는 倭亂을 대비해 성의 동남

쪽을 확장하고 약 4km 둘레의 외성을 쌓았다. 1592년 6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晉州牧使 金時敏은 3,800명의 군사와 함께 2만여명의 왜적을 물리치는 晉州大捷을 거두었다. 1593년 6월에 왜적 10여만명이 재침하여 7만의 관군과 인민이 장렬히 싸웠으나 진주성은 함락되었다.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빠진 것이 이때였다.

현재의 진주성에는 축석문, 공북문, 서암문, 포루, 축석루, 진남루, 영남포정사문루, 북장대, 서장대 등이 복원되어 있고, 국난극복의 선열을 기리는 의기사, 의암사적비, 쌍충사적비, 김시민전승각유적, 김시민장군동상, 임진대첩계사순의단, 호국사, 창열사 등과 임진왜란의 역사를 중심 주제로 하는 국립진주박물관이 있다.

### (11) 望晉山烽燧

진주시 망경남동 망진산에 위치한다. 『慶尙道地理志』(在州南7里許 南望泗川縣地城隍堂烽火相距18里59步 北望廣濟山烽火相距25里280步), 『世宗實錄地理志』(在州南 南准泗川城隍堂 北准廣濟山), 『輿地圖書』(在州南10里 南應泗川鞍峴 北報州廣濟相距40里)에 각각 기록되어 있어 남으로는 사천의 城隍堂烽燧나 鞍岾山烽燧와 서로 응하고, 북으로는 廣濟山烽燧와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진주시에서는 봉수대를 복원해 놓았는데 현위치에서 상기 봉수대와 연락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기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12) 丹城 石造如來坐像(보물 제371호)

진주시 망경동 산3번지에 위치한 금선암의 本尊으로 봉안되어 있다. 본래는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원리 남사의 폐사지에 있었던 것을 이 사찰의 주인 朴守라는 보살이 1957년 수습하여 이 곳으로 옮겨 온 것이라 한다. 光背와 臺座를 갖추고 있으나 佛像의 무릎과 대좌 윗부분이 약간 파손되었다. 螺髮의 머리는 육계가 없으며 얼굴 相好는 긴 편이다. 코는 길게 표현해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지만 입가엔 古掘한 미소를 띠고 있다. 어깨는 넓고 당당하나 허리를 너무 잘록하게 표현해 어색한 느낌이 있다. 오른손은 降魔觸地印을 짓고 있으며 왼손은 배 앞에 놓아 악기를 들고 있다. 右肩偏袒의 法衣를 걸치고 있는데 옷주름 선에서는 형식화가 심하며, 왼쪽 어깨의 거의 끝부분부터 옷주름을 표현하고 있다. 光背는 2조의 굵은 선으로 頭光과 身光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광 바깥 테두리 아래 부분에는 무릎을 꿇고 손에 공양물을 들고 있는 공양자상이 양쪽에 1구씩 표현되어 있다. 대좌는 八角臺座로 上·中·下臺石으로 만들어졌으며, 上臺는 半球形이고 仰蓮紋이 조각되었으나 거의 깨어졌다. 中臺는 각 면마다 像을 조각했으나 현재는 菩薩像과 神將像 등 5구만 남아 있다. 下臺에는 8葉複瓣蓮華文이 覆蓮으로 조각되었는데 앞쪽만 양호하고 뒷면의 연꽃은 거의 깨어지고 없다.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3) 平居洞 高麗古墳群(사적 제164호)

진주시 평거동 산44-2번지 石岬山の 남쪽 사면에 위치한다. 6기의 고려시대 방형분이 조성되어 있는데 석축에는 조성시기와 묘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정확한 조성시기와 주인을 알 수 있다. 6기 모두 丁氏 집안의 무덤으로 1079년부터 1229년까지 150년간에 걸쳐 조성되었다. 각 고분의 봉토 아랫부분을 地帶石, 隅柱와 面石, 그 위에 甲石을 얹어 마치 石塔의 基壇이나 塔身을 연상케 한다. 居昌 壁畫古墳이나 경기지방의 조선초기 방형분과 같은 것으로 내부의 매장시설은 거창 벽화고분의 예로 보아 상자 모양으로 짜여진 石室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성시기와 주인공을 基壇面石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호는 ‘元豐 二年十月一日 大相丁悅之墓’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시기가 가장 빠른 1079년에 만들어졌다. 2호는 ‘隆興三年乙酉二月 丁允燁之墓’라 새겨진 명문으로 보아 隆興三年(1165)에 조성된 丁允燁의 무덤이다. 3호는 ‘丁公允宗之墓’라는 碑石이 있는데 丁允宗은 2호의 주인공인 丁允燁의 아우이다. 4호는 ‘嘉定八年 丁彦鎮墓’라는 명문이 있는데 嘉定八年은 高麗 高宗 2년(1215)이다. 5호 묘의 전면에는 ‘令夫人 鄭氏墓’라 되어 있고 동쪽면에는 ‘丁亥十二月十日 大相鄭堉葬’이란 명문이 확인되어 부부합장묘일 가능성이 크다. 6호는 ‘紹定元年 丁良墓’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가장 늦은 1228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平居洞 高麗古墳群은 1호부터 6호까지 순서대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4) 平居洞 石造如來坐像(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7호)

진주시 평거동 391번지의 龍華寺 大雄殿 本尊으로 모셔져 있다. 이 佛像은 평거동 사무소 북서쪽 구릉에 있는 新安寺의 옛 절터에서 출토되어 현재의 위치로 옮겨져 왔다. 舟形의 頭光과 身光을 갖춘 石佛로 頭部는 시대가 조금 떨어지는 작품으로 후에 보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른손과 무릎 부분은 매우 마모가 심하나 오른손은 땅을 가르키고 있으며, 왼손은 가슴에 대고 있다. 오른쪽 가슴부분은 마모가 심하여 옷주름을 잘 알아 볼 수 없으나 왼쪽 어깨에 걸쳐져 내려온 옷자락은 잘 남아 있다. 光背의 둘레도 파손이 심한데 火焰文과 草文 등으로 장식하였다. 전체적인 조각수법으로 보아 고려 때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 (15) 平居洞 遺蹟

평거동유적은 진주시 평거동 일대에 위치하는데 평거동은 진주시의 서쪽에 위치하며 남류하던 남강이 북동쪽으로 곡류하기 시작하는 지점에 해당된다. 북쪽은 완경사의 구릉지대이고 남쪽으로는 남강에 인접한 하안층적대지이며, 서쪽으로는 남강댐이 인접해 있다. 진주시의 평거3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2001년 경남발전연

구원 역사문화센터의 지표조사와 2004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및 경남문화재연구원의 시굴조사 결과 신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주거지, 수혈, 수전, 밭 등의 생활 및 생산유구와 석관묘, 제사유구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위의 양 기관과 우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발굴결과 구석기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고 있다.

구석기시대 문화층인 제4기층과 함께 굽개, 격지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유물이 빈약하여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일시적 석기제작행위가 있었던 곳으로 구석기 중·후기의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유구로는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는데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출토유물로는 상부층에서 즐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유구는 생활유구, 생산유구, 매장유구 등이 확인되며 유구의 종류는 주거지, 수혈, 구, 석관묘, 제사유구, 수전지, 밭 등으로 다양하다.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전기와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구분되는데 전기의 주거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거지 내부에서의 출토유물은 빈약하고 목탄과 소토 등의 흔적이 거의 없어 자연폐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거지와 밭의 배치상태로 보아 생활공간과 생산공간의 분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국시대의 유구로는 주거지, 논, 밭 등이 중심을 이룬다. 주거지는 원형, 타원형의 수혈주거지가 대부분이며 주거지 상호간의 중복관계가 확인된다. 출토유물로는 우각형과수부호와 같은 적갈색연질토기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삼국시대 역시 주거지와 밭의 배치상태로 보아 생활공간과 생산공간의 분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려시대의 유구로는 생산유구인 밭이 조사되었다. 평거동유적은 남강변에 형성된 하안층적대지에 조성된 유적으로 선사 및 고대인들의 지형에 따른 토지 이용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이며, 남강변의 기초사된 대평면 일대의 유적과 함께 남부 내륙지방의 선사 및 고대의 생활유적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 기대되고 있다.

## (16) 加佐洞遺蹟

가좌동유적이 분포하는 곳은 진주시 가좌동 일대로 경상대학교 정문 맞은편과 남해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다. 이 유적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2002년 1월에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주거지, 수혈유구, 수전지 등이 확인하였다. 이후,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삼국시대의 주거지 46동과 석열유구, 석조유구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주거지는 수혈주거지로 독립된 구릉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배치된 양상을 보이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을 기본으로 타원형과 말각방형의 형태도 확인되고 있다. 이들 주거지는 중복된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해 당시 주거지를 활용함에 있어 중·개축을 활발하게 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3~9m 정도이며, 내부시설로는 벽구가 발견되는

것이 특징이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가 대부분이고 방추차와 철기류 등도 소량 수습되었다. 토기의 종류는 적갈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와 타날이 되어 있는 회백색연질토기도 일부 출토되었다. 토기의 기종으로는 시루, 옹형토기, 호형토기, 과수부토기 등이 있다. 이러한 출토유물로 보아 가좌동유적의 조성시기는 5세기대가 중심연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인근한 가좌동 고분군보다 앞선 시기의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 (17) 加佐洞 古墳群

진주시 가좌동 일대에 위치하는데 개양역의 남쪽에 있는 해발 50m 전후의 야산 정상부와 사면에 분포한다. 정상부에는 수기의 고층이, 사면에는 수많은 수혈식석곽묘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구릉의 동쪽을 중심으로 7기의 고층이 분포해 있는데 이들 고층은 대부분 도굴되고 일부는 하부의 매장시설이 노출되어 있다. 봉분의 크기는 직경 9~14m, 높이 1.5~2.5m 전후이며,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인 것으로 추정된다. 1988년 경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구릉 서쪽 말단부에 있는 1호분과 그 주변에 배치된 3기의 고분이 발굴조사 되었다. 매장시설은 모두 수혈식석곽묘이고 내부에서는 토기류와 철기류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조사된 고분은 그 규모와 출토된 유물로 보아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무렵에 진주지역의 유력집단에 의해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18) 개양 遺蹟

진주시 가좌동 개양 일대에 분포하는데 가좌동 고분군 동쪽 야산의 정상부와 사면에 위치한다. 현재 과수원과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곳에서 삼국시대 고배, 개, 단경호 등의 토기편이 채집되고 있다. 관련된 유구는 확인되지 않으나 채집유물로 보아 가좌동 고분군과 연결되는 매장유구 또는 생활유구가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IV. 조사방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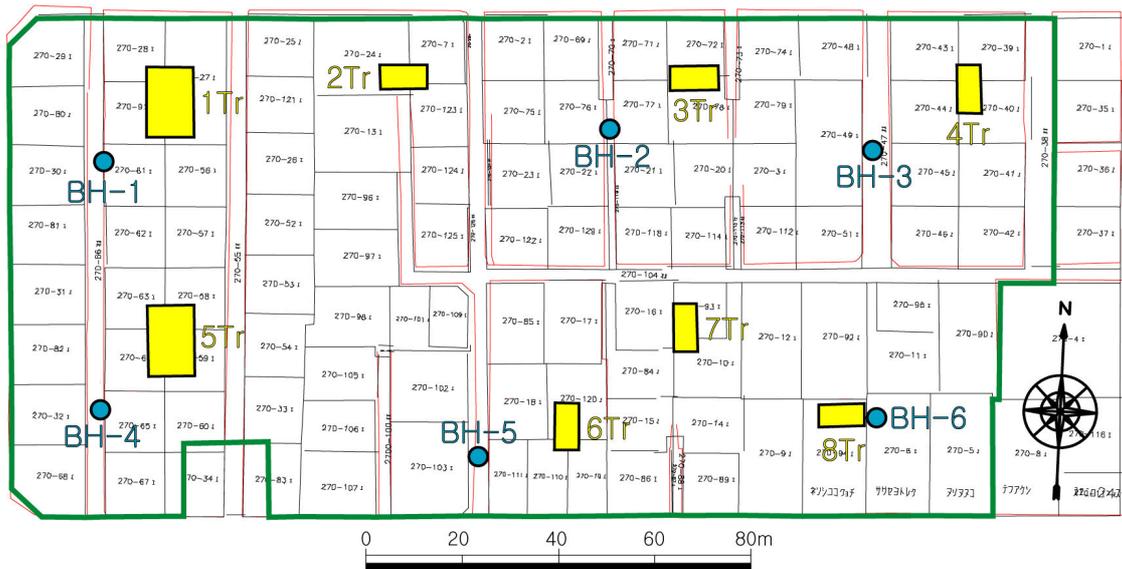
### 1. 조사방법

조사대상지역은 남강의 동안에 위치하며 S字狀으로 사행하여 흐르는 남강의 범람에 의해 형성된 U字狀의 하안충적대지에 해당된다. 북쪽으로는 해발 135.3m의 仙鶴山을 중심으로 구릉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조사지역 일대는 상평공업단지로 밀집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조사후 전경(서→동)

- 시굴조사 대상지역
- 시굴조사 트렌치
- 지반조사 시추조사지점 : 2006년 5월 (주)동서기초



도면 4. 조사대상지역 트렌치 배치도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지역의 바로 북측으로 진주시청, 서측에는 진주기계공고가 인접하고 있다. 이곳은 일반주택단지로서 주택이 밀집된 것을 최근 철거되어 있는 상태이다. 조사대상지역이 남강의 동쪽에 인접해 있어 하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하천 주변에 입지하는 생활유적의 존재 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에 임하였다. 그런데, 2006년에 인근한 대동기계공고 부지에 입회조사한 자료를 통해 이 지역은 하상활동과 관계된 지역으로서 모래와 자갈이 교차퇴적된 곳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사고에 최대한 주의하여 트렌치의 설정은 5~10m의 폭으로 길이는 10~15m, 깊이는 약 3m정도의 Pit식으로 설치하였다. 조사대상지역에 총 8개소의 트렌치를 설치하였으며 조사대상지역 전체의 토층 퇴적양상과 유구의 유무 및 분포범위 파악에 주력하였다.

## 2. 조사내용



도판 2. 진주시 상평동 공동주택  
건설예정부지내 문화유적 입회조사지역 6pit  
토층상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6)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지역의 남서쪽에 현재 (주)동일종합건설에서 시행하는 ‘진주 상평동 공동주택 건설’부지에 대하여 우리 연구원에서 2006년 9월에 입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진주 상평동 공동주택 건설예정부지 문화유적 입회조사』, 2006. 9) 입회조사에서 5×5m의 Pit 12개소를 설치하여 약 5m

조사결과 전반적인 트렌치의 토층퇴적상태는 전형적인 역석층과 모래층의 반복퇴적양상을 보이는 河床層으로 확인되었다. 표준토층인 1트렌치의 토층퇴적상태를 보면, 표토 아래로 주택가 조성당시의 매립토층이 약 50~100cm 가량 퇴적되어 있었으며, 그 아래로 굵은 모래층에 직경이 20cm이상 되는 자갈이 80% 정도 포함된 역석층이 약 60cm정도의 두께로 퇴적되어 있다. 그 아래층은 가는 모래층이 80~100cm 정도의 두께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이러한 역석층과 모래층이 반복되어서 퇴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참고적으로 조사대상지역의 사업시행전의 지반조사보고서(『진주시 상평동 아파트 신축공사 지반조사 보고서』, (주)동서기초, 2006. 5)에 의하면, 지표면 아래로 약 10m까지 모래섞인 자갈층이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깊이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Pit의 토층 퇴적상태는 표토층 아래 상부 모래층과 하부의 역석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곳 주변은 남강의 활발한 하천활동에 의한 퇴적작용이 이루어진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인간의 생활터전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곳으로 판단되며 본 조사구간 내에서도 문화 생활의 흔적을 판단할 수 있는 유구와 유물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 1) 1트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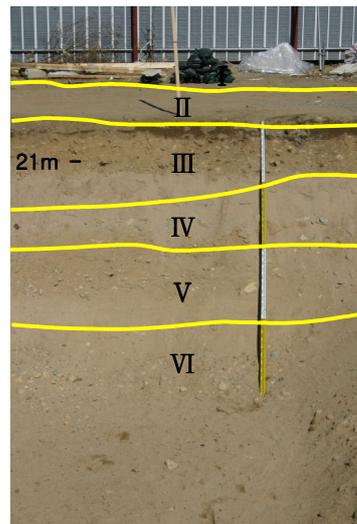
1트렌치는 조사대상지역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며, 폭 10m, 길이 15m, 깊이 3m의 pit식으로 설치하였다. 토층의 퇴적상태는 다음과 같다.

- I : 근·현대 매립토층,
- II : 황갈색사력층(Hue10YR8/4 : 굳기가 강함, 직경20cm 정도의 자갈이 80%이상 포함된 층)
- III : 회색사질층(Hue10YR8/3 : 굵은 모래로 이루어진 층)
- IV : 회황색사력층(Hue10YR8/4 : II층보다 굳기가 약하며, 직경이 5cm 정도의 작은 자갈이 약 60% 정도 포함된 층)
- V : 회색사질층(Hue10YR8/3 : III층과 동일하나 모래의 입자가 더 굵다)
- VI : 회황색사력층(Hue10YR8/4 : 굳기가 약하며, IV층과 동일하나 자갈의 포함량이 더 많다)

토층의 퇴적상태와 2006년 실시한 지반조사 보고서를 참고할 때, 조사대상지역은 남강의 범람과 유로의 변경에 따른 침수와 퇴적의 반복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부에서 인간 생활의 흔적을 판단할 수 있는 유구와 유물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도판 3. 1트렌치 조사후 전경(북→남)



도판 4. 1트렌치 토층 퇴적상태(북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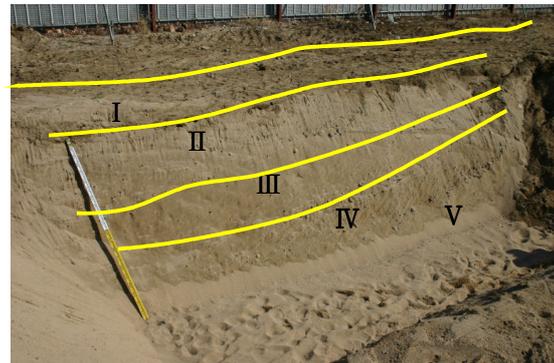
## 2) 4트렌치

4트렌치는 조사대상지역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며, 폭 5m, 길이 10m, 깊이 2m로 설치하였다. 토층의 퇴적상태는 1트렌치와 동일하다. 다만 자갈층이 1트렌치에 비해 소량 퇴적된 양상을 보이며 모래층의 퇴적이 두꺼운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양상은 남강의 과거 유로의 변경과 관계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자갈층이 남에서 북으로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토층의 퇴적은 I: 근·현대 매립토층, II: 회갈색사력층(직경 5cm 정도의 자갈이 30%정도 포함된 층), III: 회색사질층(굵은 모래로 이루어진 층), IV: 회색사력층(직경이 3~5cm 정도의 자갈이 약 30% 정도 포함된 층, 남에서 북으로 경사면을 이루고 있음), V: 회색사질층(III층과 동일하나 모래의 입자가 더 작다)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1트렌치와 동일하게 남강의 범람과 유로의 변경에 따른 침수와 퇴적의 반복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내부에서 인간 생활의 흔적을 판단할 수 있는 유구와 유물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상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지역은 남강의 영향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퇴적 및 층적되어 형성된 하안층적대지이며, 유물이나 유구 등 인간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문화재의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도판 5. 4트렌치 조사후 전경(북→남)



도판 6. 4트렌치 토층 퇴적상태(동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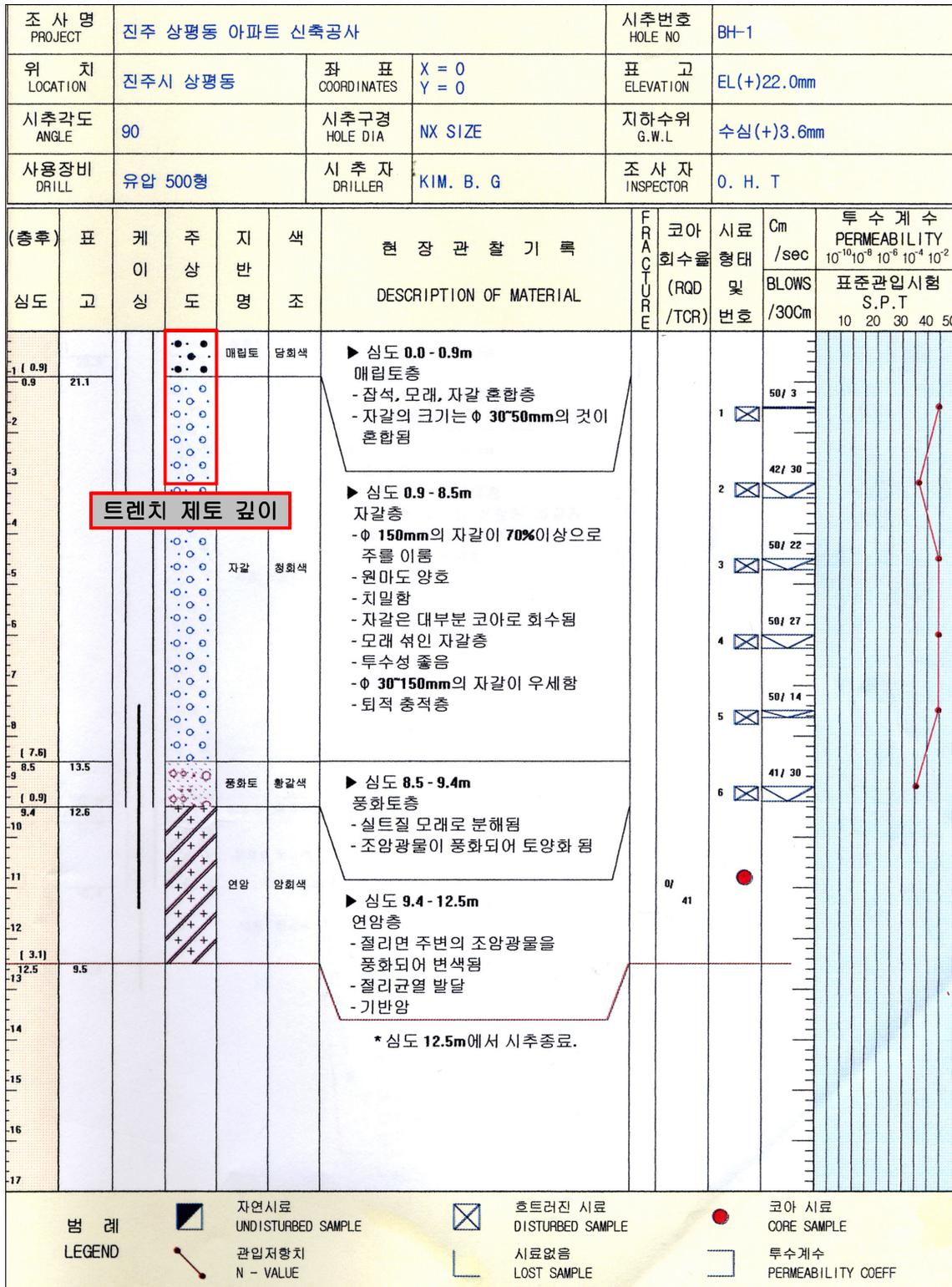
## V. 조사결과 및 조사단 의견

1. 조사대상지역은 경남 진주시 상평동 270-14번지 일원으로 (주)디에스개발에서 공동주택(남강 자이아파트)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로, 남강의 동안에 위치하며 'S'字狀으로 사행하여 흐르는 남강의 범람에 의해 형성된 하상층(구하도)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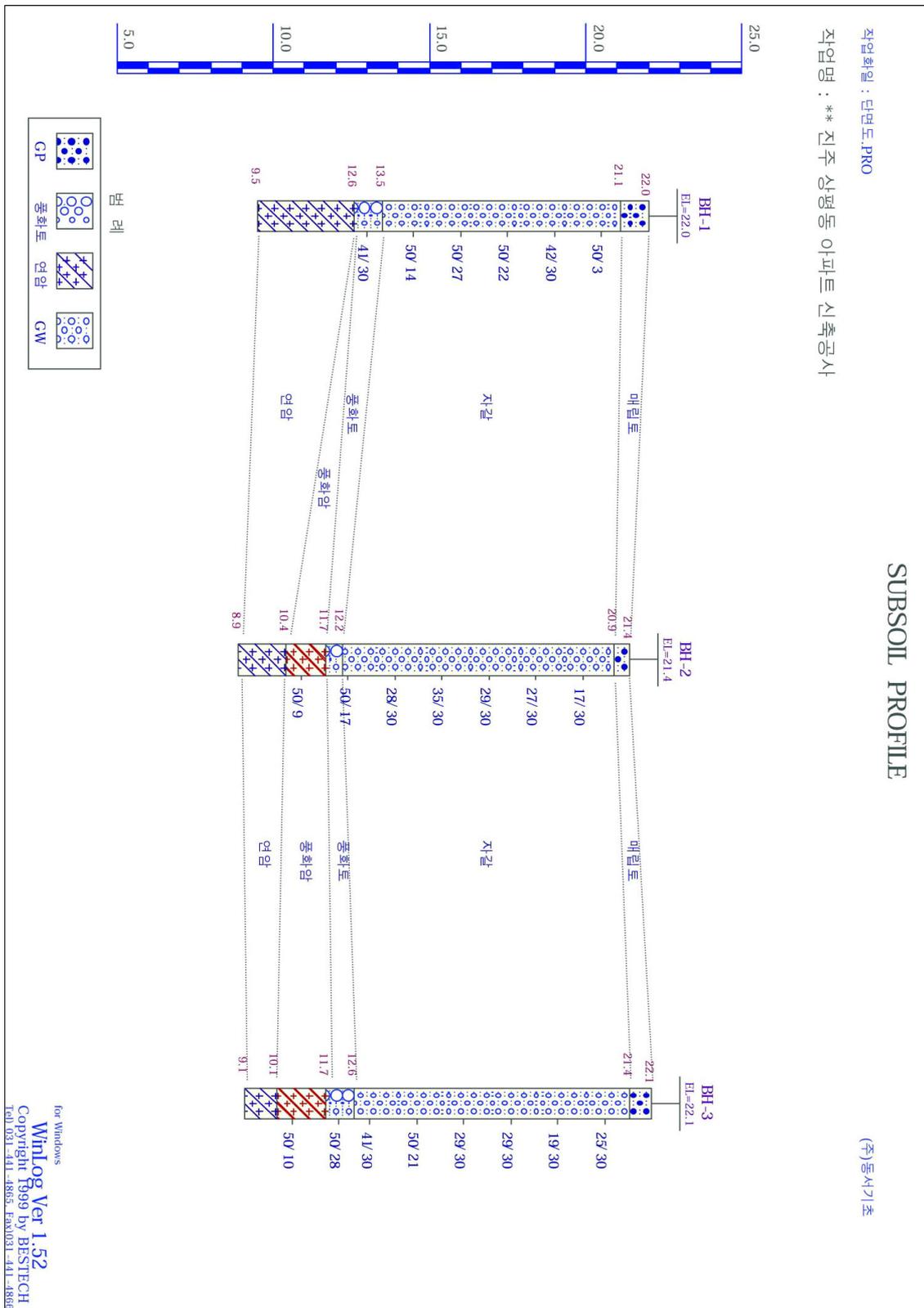
2. 조사대상지역에 폭 5~10m로 8개소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약 2~3m 깊이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트렌치의 토층 퇴적상태는 동일하였으며 표토층 아래 사력층과 모래층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남강의 범람과 유로의 변경에 따른 침수와 퇴적의 반복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며, 내부에서는 인간 생활의 흔적을 판단할 수 있는 유구와 유물 등은 이번 표본발굴(시굴)조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3. 따라서, 금번 표본발굴(시굴)조사에서 별다른 문화유적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공사진행 중 표본발굴(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에 의거 지체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4. 아울러 인간의 문화활동과 관련된 유구나 유물의 흔적이 본 조사대상지역 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변일대에 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 지역 일대에서 차후 형질변경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시행 전 반드시 매장문화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도면 5. 지반조사시 확인된 지층주상도(BH-1지점)



도면 6. 지반조사시 확인된 지층단면도(BH-1~3, 동~서)  
 (『진주시 상평동 아파트 신축공사 지반공사 지표조사 보고서』, (주)동서기초, 2006. 5)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現場說明會 第117輯

진시 상평동 남강 자이아파트 신축부지내 문화유적

## 發掘(試掘)調査 現場說明會

---

안 쇄 일 / 2008년 2월 18일

발 행 일 / 2008년 2월 19일

編輯·發行 /

財團  
法人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630-810 경남 마산시 양덕동 96-20

동문빌딩

TEL : (055) 265-9150~3

FAX : (055) 265-9154

---

E-mail : [feaci03@hanmail.net](mailto:feaci03@hanmail.net)